

2016 년 6 월 19 일(주일) 기독교를 소개합니다(11) “교회와 선교”(마 28:18-20)

[1] 선교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미전도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방향과 틀 안에서 선교에 대한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받은 것에 감동과 경이를 누리며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표현과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교**란 이 연장선에서 예배의 삶이 타민족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도록 돕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선교지에서 하는 특정한 일만을 선교라고 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당 짓고,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도 선교사의 모든 일상은 선교입니다.

본문에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교는 특정 행위가 아니라, 선교지에서의 그리스도 중심적 삶입니다. 즉 선교지에서 드리는 예배의 삶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의 내가 사는 땅 이외에 더 넓은 곳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헌신된 사람의 삶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2] 선교는 교회의 사역

선교는 교회의 사역입니다. 선교사는 교회(공동체)가 파송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에게는 자신을 보내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선교사 후보의 부르심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가 거쳐야 합니다. 선교는 내가 가야겠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선교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 검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그를 검증하고 후원을 약속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가운데 교회의 팔을 선교지까지 뻗는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하는 것의 연장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선교사만의 일이 아니라, 후방에 있는 교회의 일이기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 기도> 선교사님들을 위해 매주 화요기도회 때 기도하지만, 한번 기도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분들을 위한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일주일을 단위로 본다면 최소한 몇 차례 이상 드려져야 합니다. 이제부터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주당 여러 번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내용과 시간은 짧아도 됩니다(길면 더 좋습니다). 예:김찬영 선교사님의 기도 부탁

<재정 후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선교사님을 위한 것이 아닐 때는 마음 먹으신 대로 선교 헌금이라고 적으시고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교부에서는 들어온 헌금을 분배해서 보내드립니다. 또 특정 선교사님을 위한 후원을 하실 때는 그분 이름을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후원은 가급적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교회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줄이면, 교회는 선교사 후보의 부르심과 자질을 검증해 주고, 파송하며, 후원과 기도를 약속/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간다는 관점이 열려야 합니다.

[3] 선교가 세상에 하는 일

이제 파송한 선교사로부터 그 지역의 영적 상황과 하나님의 예비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선교 사역이란 **세상의 숨겨진 실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소식 중에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당하며, 또한 그곳 나라의 어려운 정치나 사회 문제등을 들을 때, 또는 반대로 선교 사역의 참으로 열매가 열리는 이야기도 듣고,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자기 삶의 동력으로 삼고 살게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곳의 감추어진 극명히 반대되는 두 얼굴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빛의 대사로 그 지역을 밝히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교회가 세상에 햇불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역 중에 최상의 일 중의 하나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선교사를 파송할 수도, 후원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이 갖는 공통분모는 세례 주고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돕고 섬기는 일입니다. 배운 것을 지키도록 강압하고 조정하라! 이런 명령체계를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표적 가르침은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은 말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인도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먼저 배운 사람이 그대로 사는(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상수훈을 사는 공동체 지체 중에 보내진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나누는 그 민족의 사람들도 그 삶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예수님의 분부하신 바를 가르치는 것이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선교지에서의 성도의 삶은 지루한 싸움입니다. 선교는 단 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단 시간 안에 무엇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존속하는 한 교회의 뺨친 손으로서의 선교는 함께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는 통일성을 갖추게 되고, 성경적인 본질을 함께 공유하는 유기체적 연결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건전한 선교를 추구했고, 그 길을 걸어오도록 은혜 베푸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보다 성숙한 선교를 위해서 더욱 함께 손 잡고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선교는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2. 선교는 교회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선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3.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내 삶에서 어떻게 살려내야 할지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유명한 본문 말씀의 큰 비중이 담긴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4. 이 기회를 통해 지금까지 가져왔던 나의 모든 선교에 대한 관념과 실행을 한 단계 더 열고 뛰어넘어보겠다는 마음의 열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